

기독일보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라" (마5:37) WWW.CHDAILY.COM THURSDAY, JULY 22, 2010 Vol.253

O.C교협, 수석부회장에 엄영민 목사 선출

김승욱 목사 8.15 기념예배에서 마지막 설교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 이하 O·C교협) 수석부회장직에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가 선출됐다.

O.C교협은 지난 15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서 임원회를 갖고 수석부회장이던 김승욱 목사가 한국행을 결정함에 따라 공석이 된 수석부회장직에 엄영민 목사를 선출했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김승욱 목사가 8·15 광복 65주년 기념예배 설교자로 나서기로 했다. 김 목사는 이날 설교를 끝으로 O·C교협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임원회에서는 8·15광복 65주년 감사예배와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예배는 8월 15일 저녁 6시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드려지며 이어서 개최되는 콘서트는 God's Image Ballett, HIPHOP 찬양팀, 나침반교회성가대, 남가주동신교회성가대,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성가대, 은혜한인교회성가대 등이 공연할 예정이다.

〈이태근 기자〉



지난 15일 O.C교협 임원회에 참석한 임원들.



"북한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KCC횃불기도회 오는 11월 한국서 이어갈 것

13일부터 시작된 KCC 워싱턴 횃불대회가 14일 오후 7시 30분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마지막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모인 5백여 성도들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KCC는 오는 11월 한국에서 횃불기도회를 열 예정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 목회자들은 KCC 미주 간사들로부터 횃불기도회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의 촛불을 받았다.

첫째 날(13일) 기도회에서 손인식 목사(KCC대표간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북한 동포는 너무 센 강도를 만나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과도 같다"며 한인교회들이 죽어가는 동족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동족들이 처한 실상을 전 세계를 향해 외칠 수 있기를 호소했다.

이어 수잔 숄티 여사는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 고립통제 실패, 탈북자들의 가속화, 김정일 건강 이상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도로 연합하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역시 "'기도(praying)'와 '행동 촉구(pushing)'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 날(14일) 기도회에서 이광선 목사는 북한을 '양심이 마비된 사교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시고 회복시켜주실 날까지 눈물로 기도하자. 비운의 민족이 세상의 진주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KCC는 횃불대회중 상하원의원들을 만나 탈북고아입양법안의 통과를 호소하는 일에 한인 2세들을 인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 중인 NGO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연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주이 기자〉

美 복음주의 교회들, 멕시코만 사태 해결 위해 기도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 "하나님께 의지해 극복하자"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가 발생 3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해결의 극적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멕시코만을 위한 특별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 주일이었던 지난 18일 미국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가 주최한 '멕시코 만을 위한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Gulf)'에 참여해 원유 유출을 차단하는 과정과 이번 사고로 빚어진 막대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20일 미 남부 루이지애나 주 인근 멕시코만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영국 석유회사 BP의 시추시설이 폭발하면서 빚어졌다. 미 정부는 현재까지 9천400만~1억8천400만 갤런의 원유가 멕시코만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원유는 야생동물의 보고이자 해안 습지로 유명한 루이지애나 해안은 물론, 미시시피와 앨라배마 해안을 거쳐 플로리다 서부 해안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환경 오염뿐 아니라 어업과 관광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이곳 주민들의 피해 역시 막대해, 경제적 손실이 6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6일 원유 유출을 막기 위해 BP측이 설치한 차단돔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는 일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미 정부는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감압유정 굴착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압유정의 완성으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피해의 완전한 복구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면에 계속 ▶ 〉





21세기 영적대추수를 준비하는 HARVEST 세미나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하베스트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1 성령의 시대를 향한 목회자의 준비-성령충만

영혼을 얻는 일이 목회자 개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현장의 생명은 결국 목회자 자신이 성령충만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회심과 변화, 그리고 성장은 성령이 일하시는 목회현장의 증거와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령충만은 목회의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성령의 시대, 영적대추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재까지의 경험적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 온전히 열린 마음과 강력한 사로잡힘, 이것이야 말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출발이며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 이런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 부분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함께 모여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2 성령의 시대를 향한 목회 현장의 준비-전문성

그러나 성령 체험만으로 목회적 준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이 암시하듯 현장사역을 위한 전문성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 영성에 치중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학위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설교도 좋은데 목회현장은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개인적 영성만으로 목회가 쉽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역을 해 낼 수 있는 사역적 영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개인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이 함께 갖춰질 때 살아 숨쉬는 건강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게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소그룹, 삶의 변화가 있는 제자훈련,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역동적 사역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광스런 생명의 예배 등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적 노하우들 – 이번 세미나에서 초점을 두게 될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3 성령의 시대를 향한 사모의 준비-소명 재확인

목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사모의 준비입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진리이듯이 '사모가 살아야 목사가 산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그릇과 사역의 연속성은 결국 사모의 준비, 즉 사모의 영적, 인격적 그릇의 크기만큼 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모는 목회현장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가장 큰 무기와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모는 영적 재충전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명의 재확인! 열악한 이민교회를 섬기는 사모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힘있게 섬기려면 영적재충전과 사모라는 소명에 대한 처절한 자기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사모의 영적 재충전 및 소명의 재조명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회복과 치유, 소명을 확인하는 복된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미나 일정

주후 2010년 8월 2~5일 (월-목)

온라인등록 sarangtree.com

장소 Radisson Hotel LAX
6225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LA공항에서 24시간 호텔 무료 셔틀이 제공됩니다)

등록비 (3박 4일 호텔 숙박료, 식사/간식비, 세미나 교재 포함)
목회자 $325 (개인), 사모 $250 (개인) / 부부 $525
(세미나 초과 등록시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들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등록마감 선착순 300명 (초과 등록시 대기자 명단 있음)

문의사항 하베스트 세미나 담당자
213) 386-2233
LAsarang@gmail.com

세미나 주강사





김종필 목사 부부 (엘리야김 미니스트리)
김종필 목사는 미국에서 김은주 사모는 필리핀에서 지구촌 최대의 부흥을 주신다는 소명을 받아 마지막 대추수와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도의 용장들이다. 부흥과 중보기도 그리고 선교는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의 군대를 통한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시와 나라를 엮어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사역하고 있다.
www.elijahki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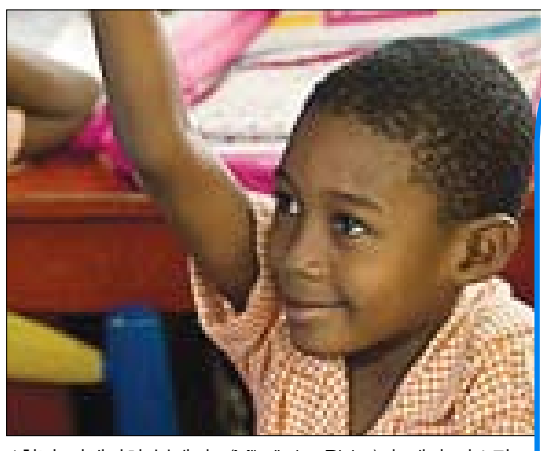


김기섭 목사 (LA사랑의교회 담임)
제자훈련의 변방이라는 LA한인타운에서 2006년 12월 개척하여 강력한 말씀훈련과 균형 잡힌 성령운동을 통해 헌신된 제자들을 세워가고 있는 이민목회자다. 간판 없는 상가 교회로 시작하여 지금은 1000여명의 중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차세대 목회자 양성과 건강한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보딩스쿨을 통한 책임 있는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꿈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www.LAsarang.com

주관
ELIJAH KIM MINISTRIES
LA사랑의교회 LA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김기섭 / Sr. Pastor Kisup Kim



핀치나트(Pinchinat)캠프에서 누오드밀라드 오스탈(Loudmillard Ostal · 7세)이 엄마 게아린 태이스매(Guerline Telisme) 앞에 서있다. 오스탈은 4명의 형제 자매들과 텐트에서 같이 생활한다. 5천여명이 현재 캠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1학년 미엘이치 블레이즈(Mihelitchy Blaise)가 에디 파스칼(Eddy Pascal)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강진으로 폐허 된 아이티, 6개월 지난 지금은

지난 1월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 6개월이 지난 지금 복구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아이티에서 지난 30여년간 구호활동을 펼쳐왔고, 지진 이후 꾸준히 구호를 진행중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 현장 상태 전해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거주하는 캠프에서 발생되는 보건상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6월 우기와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태어난지 한달 미만의 신생아들과 5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는 이런 환경으로 설사와 폐렴 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진 이후 많은 기관들의 도움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장기 재건사업들의 경우 아직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이르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이티 사업 장 게리 샤이에(Gary Shaye) 지부장은 "긴급구호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아동"이라며 "아이티 사람들 대부분은 지진발생 초기 긴급구호 물품을 받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지진이 나기 전부터 그런 물품들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이곳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곳에서 사는지 알 수 있고, 전세계는 아이티의 복구와 재건을 통해 이곳 아동들이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이에 지부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중장기 재건사업인 'Building Back Better'를 위한 전세계 후원자들의 장기적인 후원과 책임이 요구되고, 이것이 아이티의 개발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며 "중장기 재건사업은 구호 초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5개년 긴급구호 및 중장기 재건사업 계획을 갖고 활동 중이다. 현재는 여전히 지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들의 교육이나 보호, 보건, 영양, 급수, 보호소, 생계, 식량, 구호물품 배분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1면에 이어 ▶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시작된 BP측과 미국 정부측의 원유 유출 차단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되자, 멕시코만 인근 교회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회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날 기도의 날 행사에도 NAE 소속 교회들과 함께 멕시코만 지역 교회들이 대거 참여했다.

NAE 회장 리스 앤더슨 목사(미네소타 주 우드데일처치) "미국은 국가적 도전에 마주할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 온 오랜 전통이 있다"며 "멕시코만 사태라는 또다른 국가적 도전 앞에서 우리 미국인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앤더슨 목사는 NAE 소속 교회들에 예배 때마다 멕시코만 사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NAE 소속 교회로 참여한 플로리다 주 노스랜드처치의 조엘 헌터 목사 역시 "멕시코만의 생태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며 많은 교회들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멕시코만 인근 교회들과 연합해 기도회를 이끌어 온 복음주의환경네트워크(Evangelical Environmental Network) 회장 밋치 헤스콕스 목사는 "이곳 교인들은 절망적인 상황과 수많은 부정적인 예측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교회에 활력을 주는 4가지 요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조사 결과

교인들이 '활력'을 느끼는 교회는, 많은 소그룹 수, 우수한 평신도 리더십, 교회에 충실한 목회자, 그리고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된 예배의 4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감리교회(UMC)가 독립 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교회 활력의 요인(drivers of vitality)' 조사 결과, 활력 있는 교회들은 이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먼저 교회의 활력도는 소그룹 수에 정비례했다. 교인 수가 100명 미만인 비교적 작은 교회들의 경우 '높은 활력(high vitalilty)' 군에 분류된 교회들은 평균 5개 이상의 소그룹을 갖고 있었으며, 반대로 '낮은 활력(low vitalilty)' 군의 교회들은 이보다 낮은 평균 4.5개의 소그룹이 있었다.

최소 350명 이상의 성도수가 있는 비교적 큰 교회들의 경우에는 높은 활력의 교회는 37.5개, 낮은 활력의 교회는 22.5개의 소그룹이 있었다.

한편, 우수한 평신도 리더십을 가진 교회들은 84% 이상이 더 활력 있는 교회였고, 48% 이상이 더 높은 예배 출석률을 보였으며, 54% 이상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30% 이상이 교인들의 더 높은 교회 활동 참여율을 나타냈다. 또한 전체적인 평신도 리더십에는 리더의 수, 조직과 운영 방법, 개인의 신앙 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목회자 역시 한 교회의 활력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회자가 '영적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inspiring)'고 느낄수록 교회에 대해서도 '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회자가 코칭, 멘토링 등 평신도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교회 활력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머무른 기간이 길수록 교인들은 교회가 더 활력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와 현대적인 방식의 예배를 적절히 조화시킨 교회들이 가장 높은 활력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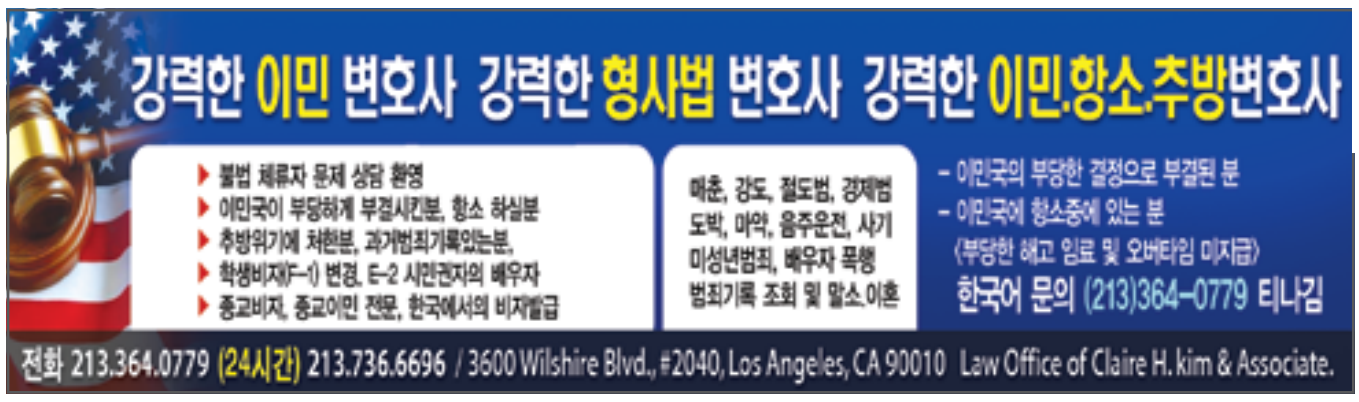
반면 전통적 예배만을 고수하고 있는 교회들의 경우 31%, 현대적 예배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경우 21%만이 활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현정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 사 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나눔과 기쁨 '신앙은 복음, 행동은 진보로'

가장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위해 작은 교회 목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교회, 학교, 기업, 점포, 주민 등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해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하니 '민간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고 특별히 이 운동에 적극 나섰던 교회들은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했더니 자연스럽게 교회로 찾아오는 영혼들이 늘어났고,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치니 큰일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나눔과 기쁨' 에 동참하고 있는 활동가(나누미)들은 현재 4천명에 달한다.

나눔과 기쁨 미주 사역 설명회가 뉴욕(12일), 워싱턴(13일), LA(15일), 오렌지카운티(16일) 지역에서 열렸다.

지난 16일 오렌지카운티 지역 설명회가 베델한인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서경석 목사(나눔과 기쁨 상임대표)는 "나눔과 기쁨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정체성을 설명했다.

'성장제일주의'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서경석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장제일주의'라는 병에 들었기 때문이라며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교회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석 목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작고 어리고 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며 "오늘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이며,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전도법이나 제자훈련, 경배와 찬양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삶



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나눔 활동의 당위성을 말했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역할분담으로 상생의 길을 도모한다

하지만 교회의 성전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이웃을 돕는 일에 주저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작은 교회들의 '연대'를 주장하는 서경석 목사는 "비록 작은 자들이 모이지만 많이 모이니까 큰 힘을 가진 세력이 되었다"면서 "작은 교회들이 뭉치니까 예수님처럼 살기가 더욱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경석 목사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반찬 나눔 운동'을 소개하면서 큰 교회가 넉넉한 예산으로 반찬을 만들고 작은 교회가 반찬을 나누는 일을 하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상생하는 길을 찾았다고 했다.

서 목사는 "작은 교회와 큰 교회에도 각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은 작은 교회에 맡기고 큰 교회는 중산층이나 지식층을 전도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예산을 작은 교회로 보냄으로써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경석 목사〉

"예수님처럼 살 때 교회 성장 기대"

나눌 때 얻어지는 기쁨의 원리는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이번 미주지역 나눔과 기쁨 사역설명회는 단순히 미주 지부 설립의 목적이 아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경석 목사는 "예수님처럼 살면 얻게 되는 축복의 원리는 같다"며 "만약 작은 한인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히스페닉을 돕는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던 한인들도 더욱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석 목사는 한국에서 개최될 WCC총회를 언급, "세계 기독교 지도자 앞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나눔과 기쁨' 운동에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보였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다시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온 자신을 예로 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을 통한 구원의 핵심을 끝까지 놓치지 말되 행동만큼은 진보적으로, 예수님처럼 삶 그 자체로 살자"고 강조했다.

나눔과 기쁨은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쓰지 않는 물건 모으기 운동, 의료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복지119,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나눔케어 등이 그것이며, 나눔과 기쁨은 이 일을 위해 활동할 나누미(활동가)들이 올해 말까지 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주지역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나눔과 기쁨에 동참할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조직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지에 걸맞은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홈페이지: www.joyofsharing.org

〈박상미 기자〉

[새벽강단 4] 남가주광염교회 새벽예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남가주광염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강조

새벽강단 네번째 교회는 창립 된지 두 달 남짓한 남가주광염교회(담임 정우성 목사)다. 어느 곳보다 절실하고 뜨거운 기도가 드려지는 남가주광염교회의 새벽예배는 성경에 꼼꼼히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라는 정우성 목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만 영영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본문〉 렘 35:12~19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백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 바알신이 있었는데 농사지을 때 필요한 비의 신입니다. 이 비는 제단에서 성적으로 죄를 범할 때 내린다고 하여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13절~16절은 모두 듣지 않았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들리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작은 신음도 모두 들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장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의 삶을 살자는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영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박상미 기자〉

나성영락교회, 285 목회자 가정에 장학금 전달



림형천 목사가 장학생 대표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태근 기자

나성영락교회(담임 림형천 목사)가 제7회 이민목회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19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 체육관에서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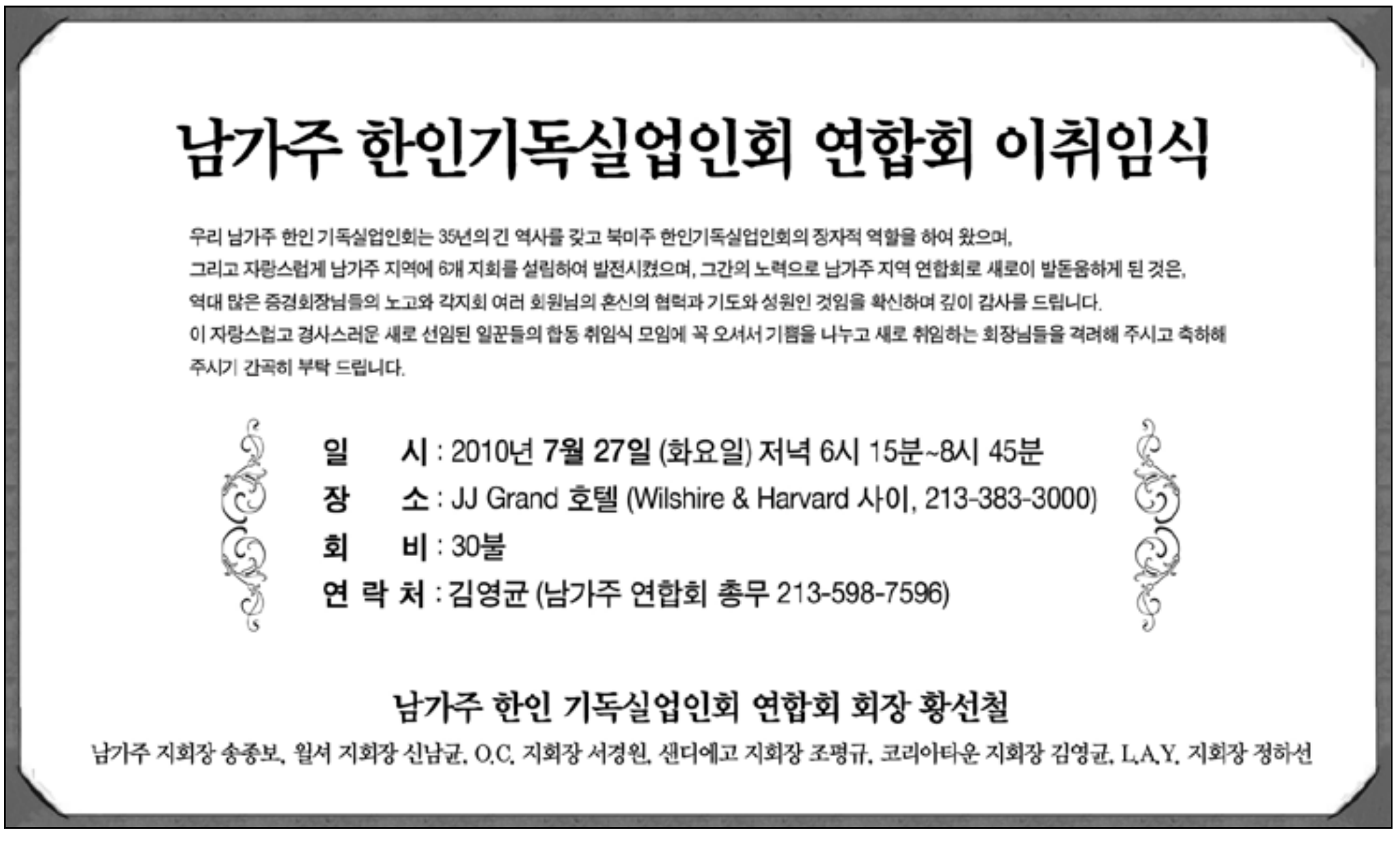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1부 경건회 2부 만찬 및 축하 3부 꿈나누기 및 장학금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경건회에서 림형천 목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장학금은 큰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이 불렀다는 소명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부름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 부모님 때문에 이민교회가 살기에 기쁨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풀러신학대 Paster Kid song Choir의 공연과 장학금 수여, 학생의 특별 찬양 등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림형천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한편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가정은 285가정이며, 일인당 1천불씩 전달됐다.

〈이태근 기자〉





[이민교회 문답] 열다섯번째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

"2세들의 정체성 확립으로 미국에 공헌하자"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양한 주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론을 수렴해 한인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자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목회자의 교단 배경이나 교세, 목회 연수와 관계없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는 2세들의 정체성 확립으로 미국에 공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열다섯번째 만남은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다. 민 목사는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USC에서 정치학을 수학했으며, 풀러신학대에서 M.A, 미주총신대에서 M.Div., 풀러신학대에서 D.Min 학위를 받았다. 또 민 목사는 현재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2003년 충현선교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세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알아야할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세 사역을 위해선 1세와 2세 서로간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대개 1세대들은 자신들이 자라온 한국의 유교사상의 틀에서 2세들을 대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2세들의 행동은 1세들에게는 '버릇없이' 보이고 1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틀에 맞추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2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2세 사역을 위해선 1세대의 틀이 아닌 장점과 2세대의 장점을 살려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체성의 혼란인데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자녀들을 세계화할 때 2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말 가르치기, 한국의 정신적인 전통과 역사, 정치, 경제, 인물 등을 자녀들에게 이야기 해주는 가르침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자녀들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들의 인식이 중요하며, 가정이 바로 섰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인과 유대인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정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을 이어간 대표적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미시건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한 네덜란드인은 신앙적 정체성으로 좋은 학자를 배출 했을 뿐만 아니라 얼드만(Erdman), 잔디반(Zondervam), 베이커(Baker) 등과 같은 출판사에서 기독 서적 출판해 기독교 문화 정착에 선두 역할을 하며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민족답게 의상뿐만 아니라 세대를 잇는 전통으로 민족적 정체성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들이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미국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교는 문화의 핵심입니다. 정신문화인 영성이 살아 있을 때 물질문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로마가 그러했듯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위에 물질문명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이 확고히 될 때 미국이 가진 동성애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고, 견고한 영성의 터에 물질문명이 세워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2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영어와 미국식 사고방식 입니다. 2세들은 이것에 훈련이 되어 있기에 1세들의 장점인 신앙의 열정이 더해지면 미국에 공헌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세들은 개인주의라는 미국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헌신이 부족하고 공동체 정신이 약합니다. 그러기에 1세의 장점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1세와 2세들의 장점이 더해진다면 부흥을 올 것입니다. 목사님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돌아가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면 이들은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들을 닮고 싶은 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교 성장은 부흥을 통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됩니다.

-어떤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1, 2차 제자도로 나눕니다. 1차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멤버가 될 것인가라는 교회에서의 제자도이며 2차 제자도는 직업을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직장에서의 제자도 입니다.

직업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들은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태근 기자〉

여름성령축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 간구해

동부사랑의교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올 여름 영적 재충전을 위한 성령축제가 지난 17일~18일까지 동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에서 개최됐다. 박승규 목사는 "여름이라고 해서 마귀에게는 방학도 휴가 없다"며 "영적 재충전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고 이번 축제에 대한 취지를 말했다. 특별히 동부사랑의교회 개척 초기에 설교한바 있으며 이번 성령축제에서 말씀을 전한 이찬수 목사는, 3년여 만에 안정기로 접어든 교회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며 간구하라고 권면했다.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는 에베소서 1장 15~1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척시기와 달리 안정기로 접어든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성장하기도 쉽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쉽다"며 "개척 초기와 달리 긴장감이 느슨해 질 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찬수 목사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며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그 자체를 간구하자"고 전했다. 17~18일 양일간 개최된 동부사랑의교회 여름성령축제는 이찬수 목사 외에도 이어령 박사의 딸로 알려진 장미나 변호사의 간증시간이 있었으며, 당초 특강이 계획되었던 이어령 박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플루티스트로 알려진 송솔나무의 콘서트가 열렸다.

〈박상미 기자〉

남가주목사회, 운동하며 장애인 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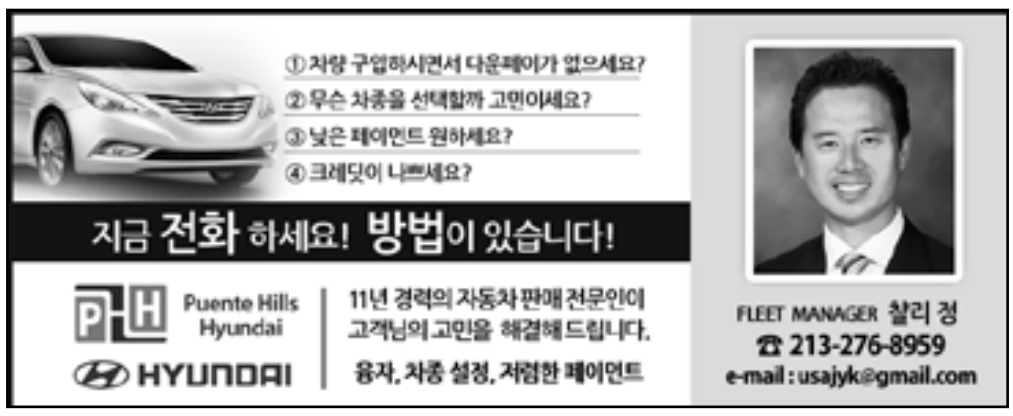


대회 우승자들과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정현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가 조이장애센터 후원을 위한 제2회 목회자 탁구대회가 19일 개최됐다.

이날 탁구대회에는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등과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단식 A, B조에는 폴강 목사와 김영국 목사가 각각 우승했다.

〈이태근 기자〉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직영 신학대학
KPCA

■ 2010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접수및 개강일 | 접수 마감일 : 2010. 8. 13(금)
개 강 일 : 2010. 8. 30(월)

학 제 | 학사(B.A.) : 128학점
교역학석사(M.Div.) : 98학점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 98학점=30학점(교회음악)+68학점(일반신학과목)
ESL: 57학점(Level test 실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 담임목사 추천서, 재정보증서(이상 본교양식)
영함판 사진(2매),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영문 각 1통

특 제 | ① 본교 졸업생들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②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예장통합 목사고시 응시자격이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예장통합 목사로 이명이 가능함.
③ 각종 장학금 혜택(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 형제자매, 근로, 동문회, 산돌회, 여선교회, 지교회, 지정 장학금 등)
④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소명의 재발견
확실한 목회 비전
미주장신대에서
찾으십시오!

■ 전임 교수 모집

지원자격 |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소속 목사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나 채용 후 본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구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분야 Ph.D. 소지자 중 1명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구비서류 | -이력서 -Ph.D. 학위 사본
-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abstract)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신대원(M.Div.)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신앙고백서(1~2페이지 분량)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e-mail 접수 가능(office@mijujangsin.org)

■ 접수 마감일 및 접수처 : 2010년 7월30일(금) 본교사무실
■ 기타 문의 : 이상명 교무처장 Tel. (562)926-1023 Ext.302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 926-1023, 4691 (ext. 300, 305)
홈페이지 : www.mijujangsin.org e-mail : office@mijujangsin.org 총 장 김 인 수 박사 이사장 양 기 호 박사

내 자리가 '선교지', 남 위한 삶이 '선교'

탤런트 권오중 집사, 글로벌선교교회서 간증 전해

글로발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 젊은이 선교축제가 '젊은이 그리고 영혼을 위한 사랑의 프로포즈(Propose)'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18일 개최됐다. 17일에 마련된 '젊은이 축제'는 고기혁 간사의 '너를 사랑해' 색소폰 연주 시간과 김지성 목사가 젊은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18일 선교축제에는 가수 박강성 집사가 청년들을 위한 찬양 콘서트와 간증을 전했다.

선교축제 환영인사를 전한 김지성 목사는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답슨은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 깊은 것을 나눌 대상을 얻고 싶은 갈망 때문"이라며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강사로 참여한 탤런트 권오중 집사는 본인이 가수 이현우와 출연한 기독교 다큐멘터라 영화 '잊혀진 가방(The Forgotten Bag, 김상철 감독)'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영화는 1950년대 아프리카를 향해 떠난 선교사들의 흔적과 삶,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유를 가방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두 남자가 추적해 나가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권오중과 이현우는 영국에 있는 선교단체 WEC의 사무실 지하 창고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두고 간 가방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후, 가방에 담긴 사연을 찾아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가방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돼 영국, 호주, 남아공, 콩고, 우간다, 기니비사우 등 8개국에 걸쳐 6개월 동안 17명의 가방 주인 후보자들을 추적해야 했다.

권오중 집사는 "30대에 기니시바우에 와서 50년 이상 성경번역, 뗏목을 타며 섬 전도, 고아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은 특권이라고 기쁘게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권 집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선교'라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대해 도전했다.

박강성 집사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라며 '파송의 노래'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등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다.

〈지재일 기자〉



(왼쪽부터)탤런트 권오중 집사, 김지성 목사, 가수 박강성 집사. ⓒ지재일 기자

조재현 교수 "문화 공연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겠죠?"



조재현 교수

문화를 통한 선교...교회가 더욱 관심 가져야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극무대. 무대를 꾸미고 조명을 비추고 간간히 목소리 출연도 하면서 전체적인 연출도 하는 그야말로 1인 10역을 소화하느라 바쁜 사람이 있다.

한국의 공연문화에 비하면 20~30년 전 수준인 열악한 미주 한인사회에서 그의 고군분투는 울림 없는 메아리 같지만,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통한 선교에 대한 비전은 누구보다 확고했다. 바로 베데스다신학대에서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는 조재현 교수.

한국에서 100여 편의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기획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가 돌연 미국에 온 것은 배움에 대한 열망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는다.

"원래 동부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서부 L.A로 오게 됐고 오자마자 시장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문화 공연이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처음엔 몰랐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계기도 바로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일종의 특수 분야인 문화 관련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시도조차 힘들다. 재능도 있고 높은 전문지식을 가진 일꾼들이 많지만 수년전에 이민을 온 탓에 현재의 문화수준과도 동떨어져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있는 숨은 일꾼들을 찾아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하던 것에 비하면 1/10도 미치지 못하는데...공연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공연이 크리스천 모노드라마 '아이야 이제 웃어보렴' 이란 연극이다. 자폐증 딸을 가진 엄마의 이야기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폐증인 딸에게서도 희망을 되찾게 되는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 집 건너면 하나씩 자폐증이나 장애인을 둔 가정이 많아요.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손길은 무엇보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죠."

그가 준비하는 또 다른 작품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한 실버연극(하늘꽃-대본:조재현)이다.

"공연 때문에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 작은교회도 가 보게 되었는데...연로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이젠 자식들의 뒤편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우리 사회 이면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일상에 대한 놓치기 쉬운 감사를 되찾게 해준다. 이런 소통과 깨달음, 감동과 치유를 문화라는 컨텐츠를 활용해 극대화할 수 있다는게 조재현 교수의 생각이다.

"교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 공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 보다 더 필요한건 목회자님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이 문화 컨텐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죠. 이 분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함께 기대하면서 계획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연극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고, 연극이 아니면 할 줄 아는게 없었다. 연극 때문에 성공도 해보았고 연극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과 달란트를 주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조재현 교수는 그분의 뜻하심이 바로 비전이 되었다.

〈박상미 기자〉

크라이스트 엔터프라이즈 2차 '간병인 세미나'

관련업계 취업 필수과정, 15시간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Christ's Enterprises에서 주최하는 간병인 및 응급조치 세미나가 오는 7월 29~31일까지 얼바인에 위치한 우림교회(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에서 개최된다. 3일간 총 15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의 수강료는 $440이며, 특히 4시간 교육으로 3년 유효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응급조치 세미나의 수강료는 $40이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Dr. Janet Choi (자넷 최 박사, 노인 건강 케어 컨설턴트)가 나서며, 병원과 양로원을 직접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박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양로원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과정인 교육 세미나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15 시간의 짧은 간병인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간병인은 이웃을 섬기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정부와 상관없이 보수 교육이 없고 2년 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사무실 949-900-6859

플러튼: 714-469-4161 (Roy Choi), 714-328-0511(Rev. Liz Kim)

L.A: (213) 435-1121(강철)

〈박상미 기자〉

송솔나무 "우리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와 같죠"

드라마 '허준'과 이산, 현재 방영중인 '동이'의 주제곡 연주자로 알려진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지난 17일 동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 여름성령축제에서 어메이징 콘서트를 가졌다.

송솔나무는 2만 불에 가까운 악기부터 2백 불도 채 안되면서 그것도 일부 고장 나기까지 한 악기로 연주하면서 "비싸거나 싼 악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연주하는 연주자 때문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와 같고, 하나님은 우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원하신다"고 말했다.

송솔나무는 '틴휘슬(Tinwhistle)'의 한국최초 연주자이면서 독보적인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박상미 기자〉





“북한인권법 통과시키고 탈북자 도울 길 찾아야”

이광선 대표회장, 안상수 대표에 건의



안상수 신임 한나라당 대표(왼쪽)와 이광선 대표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신임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된 안상수 의원이 19일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찾아 이광선 대표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광선 대표회장은 특히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횃불기도회 참석 소감을 전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 대표회장은 “미국에서는 중국에 흩어져 있는 북한 여성들의 어려움과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빨리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중국에 흩어져 있는 국적 없는 아이나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지금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고, 우리 정부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국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저희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회장은 재차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성폭행 이후 매매되어 가서 낳은 아이들, 우리 고아들이 3천여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입양하기 위한 법을 미국 정부가 만들려 하니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가능한 한 빨리 제정하고, 고아들의 입양 절차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인권법은 야당이 반대해서 빨리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아이들은 한국으로 데려와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표회장은 “더운데 오셔서 고맙고 축하한다”고 인사했고, 안 대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당원과 국민들께서 뽑아주셔서 중책을 맡게 됐다”며 “이광선 목사님은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오늘 인사드리고 여러가지로 많이 지도받고 조언도 받으려 한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또 “요새 정당이나 국회가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꾸짖을 때는 꾸짖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국회나 정당이 국민의 존경을 받도록 많은 지도를 해 달라”고 말했고, 이 대표회장은 “어느 정당이든 한번 선거에서 이기거나 진다고 해서 그 정당을 불신하고 신임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나라당에서 내세운 정책을 굳건하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 대표 외에 조해진 대변인,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등이 함께했고, 한기총에서는 김운태 총무와 정연택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이대웅 기자〉

▶ 당장 연회감독 선거부터가 문제 될 듯

또다시 ‘두 감독회장’ 대립… 감리교 어디로 가나

과연 감리교 호는 어디로 갈까. 감리교는 지난 2년 가까이 김국도-고수철 목사가 서로 감독회장임을 주장하며 대립, 특히 본부 쟁탈전을 벌이며 수 차례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었다.

이 과정에서 용역도 동원됐고 경찰도 출동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측 재선거에서 강흥복 목사(상계감리교회)가 당선되면서, 감리교가 6.3 천안총회측 감독회장 당선자인 김국도 목사와 함께 또다시 ‘두 감독회장’ 간의 대립을 연출하게 됐다. 감리교 감독회장 사태가, 이번에는 김국도-강흥복 목사간의 대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로선 이규학 임시 감독회장이 지지하고 있는 본부측 선거에서 당선된 강흥복 목사가 여러 모로 유리한 상황이다.

본부측은 지난 6월 10일 이규학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으면서 그간 내세워왔던 법적 정당성마저 위협받았으나, 7월 5일 역시 법원에서 이 감독이 임시 감독회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다.

게다가 본부측은 대표자 등기와 인감, 본부 열쇠 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부담도 안고 있다. 이번 재선거는 총회를 거치지 않은 선거였다는 점과, 선거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우편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이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 연회 감독들이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내 모처에 비밀리에 모였으나 수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 원만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반면 6.3 천안총회측은 ‘사회법’에 휘둘리지 않고 ‘교리와장정’에 입각한 교단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 재선거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각하 및 기각까지 당하면서 충격이 커졌다.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크게 훼손된 셈이다.

그러나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강흥복 목사와 김국도 목사 어느 쪽도 물러설 뜻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양측은 김국도 목사측과 고수철 목사측으로 나뉘어 대립해왔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각각 감독회장임을 주장하며 세력을 규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회감독 선거이다. 감리교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인 데 비해 연회감독의 임기는 2년이다.

때문에 감독회장 선거와 연회감독 선거를 진행했던 2008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연회감독 선거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감독회장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양측이 갈라져 갈등하고 있는 만큼, 연회감독 선거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규학 임시 감독회장은 최근 공지를 통해 “7.13 재선거 완료 후 즉시 제29회 연회감독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규학 목사는 “이것은 연회감독을 둘러싼 예견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출마 예정자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평신도단체의 청원 등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다수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6.3 천안총회측은 최근 본부측에 연회감독 선거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천안총회측이 독자적으로 연회감독 선거를 진행하는 강수를 둔다면 감독회장 사태는 각 연회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향후 양측이 지지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김국도 목사측은 2년 전 후보자격의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44% 가량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고, 총회를 소집해 과반수 참석으로 성사시켰을만큼 인원동원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본부측은 그간 개혁총회를 개최하자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지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본부측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감독회장 사태가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일선 교회들의 행정적 어려움과 혼란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웅 기자〉

뉴비전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뉴비전교회는 1981년 창립되어 그동안
북가주 지역에서 교포와 지역사회 복음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차세대 이민교회의
새 비전을 제시하실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자격

1. 이민 목회의 새 비전과 소명이 있는 분
2. 교회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남침례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3.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회경력 5년 이상으로 담임목회 경험 있는 분
4. 저희 교회내의 영어권과 함께 사역이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한 분
5. M.Div나 Th.M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이상

서류

1. 이력서 (Resume)
2. 자기소개 (가족 포함) 및 목회 비전서 (Mission & Vision Statement)
3. 졸업 및 안수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 Ordination)
4. 본인/가족사진 1매
5. 설교 Tape/CD 혹은 Video Tape 2개
6. 3 명의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7. 마감날자: 7/19/2010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New Vision Church
C/O Sr. Pastor Search Committee (청빙위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Tel: (408) 719-0000 Fax: (408) 719-0007
Email: srpastorsearchcte@newvisionchurch.org

Building God's People to Impact the World

오정현 목사, 브라질 장로교 총회서 외국인 최초 설교

■ 현지 교회, 제자훈련 관심 뜨거워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브라질 장로교 총회에서 설교자로 강단에 섰다.

브라질 장로교단은 교단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제27차 총회를 지난 12일 브라질 남부도시 꾸리찌바에 위치한 꾸리찌바 장로교회에서 개최했다.

브라질 장로교 총대 1천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 본문,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자'를 제목으로 설교한 오 목사는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 대한민국과 세계 2위 크리스천 국가인 브라질이 마지막 날에 선교적 사명의 원대한 꿈을 같이 이루는 복음의 동반자가 되자"고 역설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날 설교에 앞서 총대들을 대상으로 오 목사를 소개하기 위해 배부된 포르투갈어 팸플릿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며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사랑의교회와 오 목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지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장로교 총회장 호베르토 브라실레이로 실바 목사는 "오늘 오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우리 교단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자훈련을 통해 증명된 복음의 생동력 넘치는 실천적 교훈을 브라질교회가 배우자"고 전했다.


브라질 장로교 총회서 오정현 목사가 외국인 최초로 설교자로 나섰다. ⓒ사랑의교회 제공

실바 목사는 오 목사를 외국인 최초 설교자로 초청한 이유에 대해 "오 목사가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익히 알고 있다. 그와 함께 세계교회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싶었다"며 "오 목사가 가진 복음에 대한 비전이 브라질 장로교회에 새로운 장을 열어 줄 것이라 확신 했다"고 밝혔다.

설교 후 오 목사는 "제자훈련은 단순한 이론이나 신앙 원리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며 "그 변화의 증폭과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브라질 교회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오 목사를 비롯한 사랑의교회 관계자들과 브라질 장로교 총대들은 총회 후 연석회의를 통해 제자훈련 사역을 브라질 장로교회 신앙운동의 주요 지표로 삼기로 약속했다.

〈김진영 기자〉

"KTX 울산역 명칭에 '양산 통도사'가 웬말이냐"

비대위 상경 기자회견... "감정적 반대나 종교간 갈등 아니다"

최근 울산광역시가 KTX 울산역사 명칭을 '울산역(통도사)'로 정한데 대해 울산 기독교계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KTX울산역(통도사)명칭폐기울산기독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심광민 목사, 이하 비대위)가 19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역사 명칭을 '울산역'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 기자회견에서 울산 교계가 무작정 감정적으로 특정 종교 명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반대 명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들은 "기독교만이 울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특정 소수의 목회자만이 시민과 성도를 선동하는 것으로 매도되며 건전한 신앙의 양심적 요구를 트집이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신앙양심을 회복하고 특히 종교간의 편향을 넘어 종교간의 건강한 어우러짐을 회복하고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비대위는 '울산역(통도사)' 명칭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선정과정에서 기독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공모 결과 1위였던 '울산역'이 선정되지 않은 점 ▲통도사는 국보나 보물, 지방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은 특정 종교의 사찰명일 뿐이라는 점 ▲통도사는 행정구역상으로도 울산이 아닌 양산에 소재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류재광 기자〉


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울산 기독교 비대위 관계자들. 위원장 심광민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막장으로 치닫는 인터넷 문화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국민희망실천연대 사단법인 설립 감사예배


국민희망실천연대 사단법인 설립 감사예배에서 이영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지난해 12월 익명성을 기초로 한 인터넷 공간의 폐해를 막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출범한 국민희망실천연대(이사장 이영훈 목사, 이하 희망연대)가 사단법인 설립 감사예배 및 국민희망지도자 특강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했다.

희망(Hope)·실천(Practice)·긍정(Affirmation)·적극(Positiveness)·배려 (Consideration) 등 5대 핵심가치 아래 건전한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문화 창달을 통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희망연대는 지난 3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후 5월 공식 홈페이지(www.caph.kr)를 오픈, 6월부터 아름다운 문화지킴이 10조 103명을 조직해 사이버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예배에서는 아름다운 문화지킴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및 대표자 선서가 진행됐다.

이병인 간사가 대표로 낭독한 선언문에서는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말 바른 글과 건전한 행동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공격적인 토론 문화와 악의적인 댓글을 감시하고, 선한 댓글 달기에 앞장서 나갈 것 △유해사이트 차단과 불건전한 막장 드라마 폐지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 △TV·영화·공연·출판·언론·게임·음악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이 땅에 건전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자리잡도록 앞장서 나갈 것 등을 다짐했다.

앞서 열린 감사예배에서는 '사랑의 수고(살전 1:2-4)'라는 제목으로 이영훈 이사장이 설교했다. 이 이사장은 이영훈 이사장은 "파괴적인 반기독교 문화는 범람하고, 세속 문화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기독교 문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희망연대의 섬김과 사랑 실천 활동으로 소망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러한 문화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매스미디어 문화 만들기'를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억주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사람들은 인터넷을 '가상공간'이라 부르지만, 이미 이곳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 "고 전했다.

이 목사는 "안티들은 중세나 고대에 있었던 오래 전 일을 현재화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확대해석해 기독교를 비방하고 정부를 몰아붙여서 선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선교 초기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웠듯 교회는 시대마다 사명이 있는데, 지금은 새 문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는 지난 3월 10주 코스로 '느헤미야 리더십 스쿨'을 개설해 긍정적·창조적 차세대 리더 양성을 시작했는데, 오는 9월 아름다운 대중문화 만들기와 긍정·창조의 리더십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이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 '아름다운 문화 만들기'를 위해 사이버 감시단(아름다운 문화지킴이)을 통한 인터넷·매스미디어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선한 댓글 달기와 좋은 글 남기기 운동, 막장드라마 폐지와 편파보도 개선 운동 등에도 적극 나선다. '건강하고 잘사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긍정과 희망의 인사 나누기 운동, 희망 실천을 위한 청계천 걷기 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온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를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던 비전트립

엑소더스교회 멕시코 비전트립 다녀와

매일 열린 부흥회에 5백명씩 참석하고 마지막날에는 현지의 시장(市長)까지 와서 1천2백명이 참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리며 세족식을 하려 했으나 현지의 부족한 물 사정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어려움을 겪자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무사히 세족식을 마칠 수 있었다. 엑소더스교회가 마이애미한인장로교회, 템파샘물교회와 함께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멕시코 북쪼스 지역으로 비전트립을 다녀 왔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싸우며 현지인들에게 안경을 만들어 주고, 마사지·파마 등 미용 사역도 하고 건강을 검진해 주는 의료 사역도 했다. 밤에는 모기와 싸우며 저녁 부흥회를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지인들의 사진도 찍어 주고, 가정 문제를 상담도 해 주고, VBS와 전도도 하고 장학금까지 전달하고 왔다.



엑소더스교회가 비전트립 중 개최한 저녁부흥회 마지막날 1200명이 참석해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

이 비전트립에 함께한 이철원 담임목사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우리 역시 그곳에서 배운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정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그들의 태도와, 특히 행사가 늦게 끝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했다. 이 목사는 특히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성도들이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돌아 왔으며 무엇보다도 "전도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은 것"을 큰 수확으로 꼽았다.

엑소더스교회의 이번 비전트립은 짧은 기간동안 이뤄졌지만 멕시코 선교에 깊은 노하우를 가진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 개최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효과적 방식으로 내실있게 진행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준형 기자〉

KUMC 여성들 긴급구호에 동참

시카고 지역 연합감리교 한인 여성들이 지난 18일 남부시카고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모여 교단 산하 구호위원회(UMCOR, The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를 도와 204개의 긴급구호 키트를 포장했다.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는 1940년 창립돼 전세계의 전쟁 피해자 구호, 각종 재난과 기아, 빈곤 구호 등 다양한 사역을 벌여 왔다. 현재 6백명의 사역자들이 80여개국에서 매년 5천만불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며 구호 사역을 펼치고 있다.

구호위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만드는 긴급구호키트다.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약품, 생필품이 들어있는 이 구호키트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포장돼 전세계로 나누어진다.

구호위원회를 돕기 위해 이번에 시카고지역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연합회(회장 임문순 권사)가 나섰다. 시카고 지역 교회들로부터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총 204개의 키트를 포장했다. 이 키트는 루이지애나의 물류창고로 보내지고 전세계에서 이 키트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전달된다.

본격적인 포장에 앞서 회원들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는 새롭게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한 황헌영 목사가 "섬김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에는 여성들이 플라스틱백의 위험함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플라스틱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결단했다. 〈김준형 기자〉



KUMC 여선교회연합회원들이 남부시카고교회에 모여 구호키트를 포장하며 사랑 나눔에 동참했다.

중북부 KUMC 목회자 가족들 재충전과 위로

UMC 중북부한인총회 컨퍼런스 열려



KUMC 중북부 목회자 가족 컨퍼런스가 목회자 34가정,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2일부터 15일까지 연합감리교회 중북부한인총회 목회자 가족 컨퍼런스 및 총회가 노스브룩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일리노이를 비롯해, 인디애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아이오와 등의 주를 선교구로 포함하고 있는 중북부한인총회가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에 올해는 목회자 34가정, 총 1백명이 참석했다.

올해의 강사는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이며 지난 4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에 당선된 이성철 목사였다. 이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도로 승리하라, 껍질을 깨라, 말씀으로 자라가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등의 말씀을 통해 동료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저녁 영성집회와 새벽집회가 진행됐고 목회 세미나, 건강 세미나 등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도 마련됐다.

일선 목회에 지친 목회자와 그 가족을 위해 시카고 다운타운을 관광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목회자 가족들 가운데 음악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꾸민 "한여름밤의 음악회"도 인기가 있었다. 목회자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며 격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목회의 고민을 털어놓고 정보를 나누는 "This is My Ministry" 등의 프로그램도 있었다. 〈김준형 기자〉

▶ 굿쉐퍼드교회, 경인교육대학과 여름 캠프



경인교대에서 미국을 방문한 6명 대학생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 석경원 군과 굿쉐퍼드교회 김재범 담임목사

해시계 만들며 과학과 한국문화 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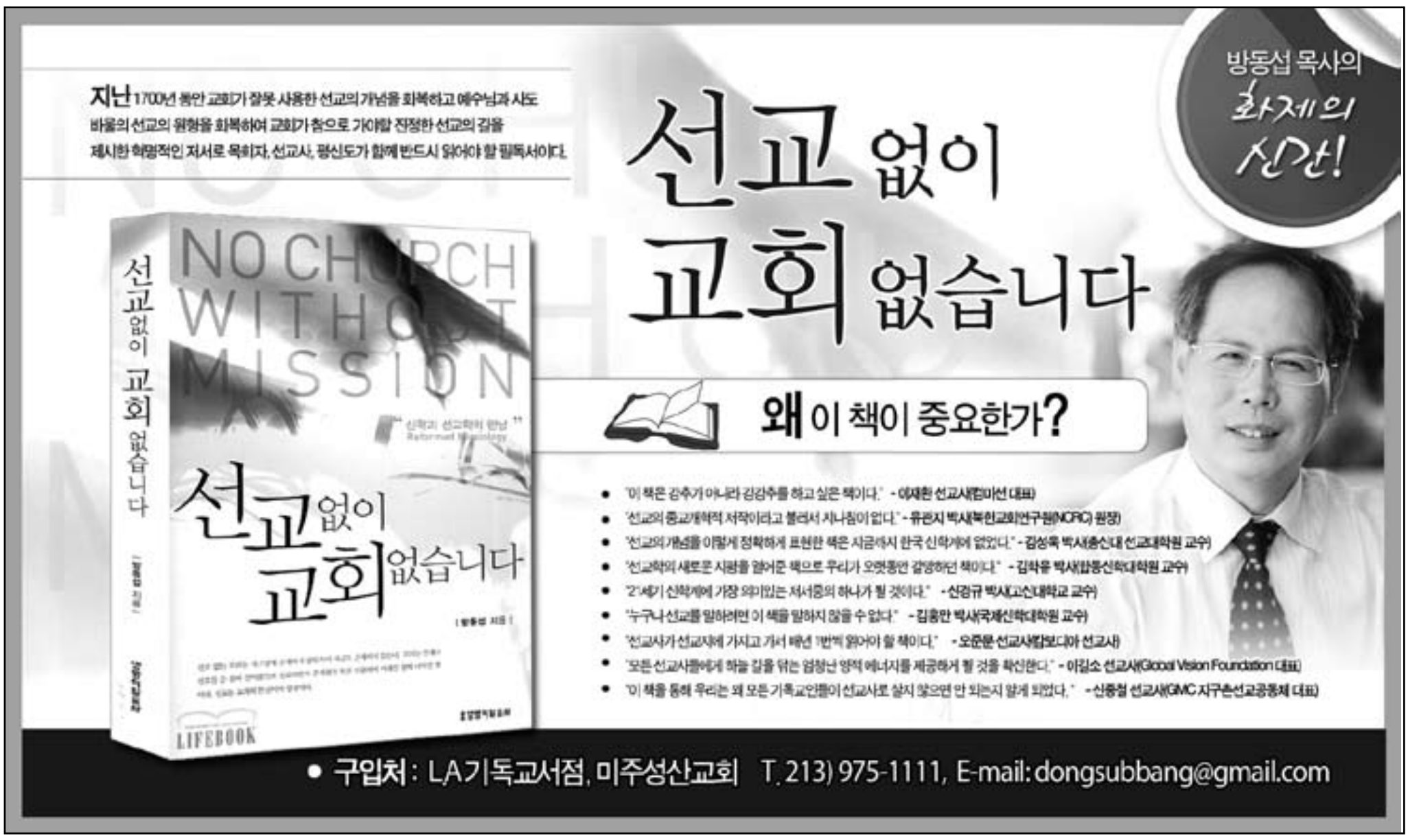
12일부터 굿쉐퍼드교회가 경인교육대학과 함께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문화캠프를 열었다. 이 기간동안 한국어 교실은 물론 해시계 만들기, 부채 만들기, 거북선 만들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등 한국 문화와 과학이 접목되는 기발한 공예 시간이 많이 마련돼 있고 제기차기, 강강술래, 긴줄넘기 등 한국 전통 놀이 시간도 있었다.

이 캠프를 위해 한국에서 6명의 남자 대학생들이 네이퍼빌을 방문했다. 이들은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미국으로 왔다. 경인교대는 장차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대학생들의 안목과 경험을 넓혀 주기 위해 미국 등 해외 여러나라에 대학생들을 보내 현지의 한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파견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겐 좋은 실습 경험이 될 뿐 아니라 해외 여행의 기회도 되기에 사전 계획서 제출, 면접 등 다소 까다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이 선발된다고 한다.

김재범 담임목사는 이번 캠프에 아주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한국에서 온 미래의 선생님들이 여는 한국문화 캠프라는 점에서 한국문화를 보다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사회의 한국 교육이 주로 이뤄지는 곳이 교회인데 이곳에서 여성 선생님만 만나던 어린이들이 형, 오빠 같은 남성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일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올해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27명이 캠프에 참석했다. 내년에는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한 가운데 캠프를 더욱 개방해 한국문화를 타민족 미국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장으로 열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캠프 현장에서 열심히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선생님들을 만나 봤다. 지난해 베트남을 거쳐 올해는 미국으로 왔다는 석경원 군(경인교대 3학년)은 "우리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준 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사회의 한국 어린이들이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을 교회가 감당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 군은 "한국도 다문화가정 등 이민자 어린이들이 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교생실습을 할 기회는 없었다. 이곳의 경험이 장차 한국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굿쉐퍼드교회는 이번에 교회를 방문 중인 6명의 대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관광 등 미국 체험을 돕고 있기도 하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교회

담임 :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0:00
영어장년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소망교회

담임 : 김재율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토요모임(중등부) 오후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 박헌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 EM 오후 1:45
4부 청년 오후 2: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성경공부: (화)오후7:30 ,
(수)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213)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주일찬양 오후 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 박용덕 목사

1부 예배 : 오전 8:00
2부 예배 : 오전 11:30
수요예배 :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 오전5:30
Youth 예배 : 오전10:30
영어(EM)예배 :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흉장로교회

담임 :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오전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15
5부예배 오후 2:30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c.org

둘로스교회

담임 :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1:30
수요예배 오후8:00
새벽기도 : 오전 5:15(화~금)
오전 6:00 (토)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EM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519 Western Ave, LA ,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4부 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d.,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2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타운 4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 정 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2부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경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쉼있는교회

담임 :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중앙교회

담임 :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F.(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45
3부EM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오후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생장로교회

담임 :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셀모임 오전 7:00(토)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심교회

담임 : 안충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후 1:15
청년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교회

담임 : 이승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수요예배 오후 7:00
청년예배 오후 7:00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213)249-9191 / F.(213)739-0515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 :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EM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Cell Church (금) 오후 8:00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리더쉽 트레이닝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교회

담임 :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힐로우쉽홀)
정오 12:30 (본당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7:45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 최성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3부영어예배 오후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올 할렐루야 어땠나?

할렐루야복음화 대회 평가회 열려


2010 할렐루야복음화대회 평가회가 20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재정보고〉

2010할렐루야복음화대회에는 총 49,308.75불의 헌금을 비롯해 88개 교회의 지원금 62,100불, 명성교회 24,985불 등 총 194,740.75불이 수입으로 보고됐다. 그 중 본대회에는 138,410.03불, 청소년대회 10,179.59불, 어린이대회 5,250불이 지출돼 40,901.13불이 남았다. 그러나 이 중 35,000불은 광고 미수금이다.

본대회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소사용료다. 음향장비 13,000불을 포함한 장소 사용료는 40,360불이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장학금 17,000불이다. 올해 교협은 개척교회 자녀, 신학생 순으로 35명을 선정, 일인당 5백불을 지급했다. 또한 단기선교를 떠나는 60명에게 각각 2백불 씩 12,000불을 지원했다. 이외에 지출된 1만불 이상의 항목은 방송광고비, 강사비 1만불이다.

〈교회 참여, 활성화 되어야 한다〉

후원 교회 수가 지난해 1백여개에서 88개로 줄었다. 이같이 지원교회 수가 줄은 것에 대해 교협은 "대회 준비 초창기에 '김삼환 목사가 10만불 후원금을 내놓는다.'는 루머가 퍼져 참여 교회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재홍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게 중요하다. 순서를 골고루 맡겨 보다 많은 교회들이 참가하게 해야 한다. 헌금을 많이 한 교회가 순서를 맡는 것은 좋지만 다른 교회를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준비, 좀 더 필요하다〉

올 할렐루야대회는 교회가 아닌 퀸즈칼리지에서 열렸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할렐루야대회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지만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열려서 미흡한 점이 있다. 교회는 집회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장소지만 콜든센터는 그렇지 않아서 따로 준비할 것이 많았다. 이를 위해 교협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콜든센터에서 준비하는 분이 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평가회도 바뀌어야 한다〉

평가회도 진일보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목회자는 "평가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교협 자체적으로 대회를 평가, 분석하고 보고서에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삼환 목사의 메세지, 이렇게 진보했다〉

2회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한 노기송 목사는 김삼환 목사의 메세지에 대해 "처음에는 가난한 시절에 겪었던 일을 많이 이야기했고, 두번째는 상처받았던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다. 올해 세번째는 '세계화'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노 목사는 "올해 대회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상은 '포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설교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빼고 양쪽을 다 끌고 가는 포용력을 보았다."고 전했다.

〈이애숙 집사의 불참〉

당초 그룹 코리아나 출신인 이애숙 집사가 대회에 참석해 마지막 날 '손에 손잡고'를 청중들과 열창할 예정이었다. 할렐루야대회 홍보를 위해 올 초에는 뉴욕을 방문,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협은 이후 할렐루야대회를 준비하면서 강사인 김삼환 목사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로 했고, 이애숙 집사는 할렐루야대회에 불참하게 됐다. 한편 교협은 올 초 뉴욕을 방문한 비용 2천불을 이애숙 집사에게 지급했다.

〈목회자 세미나 지원금, 이렇게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대회 기간 중 열린 목회자세미나에 참가한 목회자들에게 김삼환 목사는 1백불 씩 남기고 갔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집회에서 김 목사님이 '3백명에게 1백불씩 드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3만불을 주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2만불을 주고 가셨다."며 "그 날 참석했던 목회자들은 23일까지 교협 사무실에 와서 싸인하고 갖고 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협은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윤주이 기자〉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 취임예배

신임회장 장석진 목사(뉴욕성결교회 담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장석진 목사, 이하 미기총) 회장 및 임원진 취임예배가 오는 8월 2일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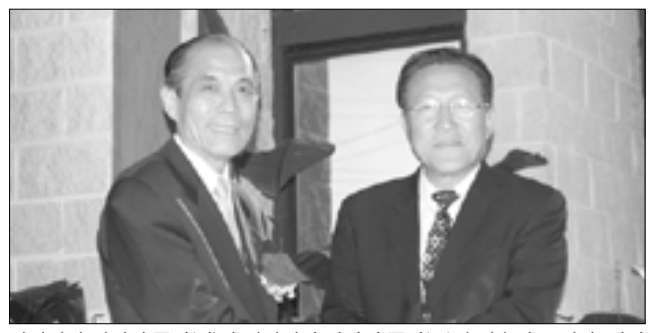
미기총은 지난 5월 24일 뉴욕성결교회에서 제 12차 총회를 갖고 장석진 목사를 회장으로 선정했다.

장석진 목사는 1976년 뉴욕성결교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기독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16대 회장, 세계성신클럽 미주회장, 뉴욕성결대학(원) 초대 학장, 미주성결대 카우만 신학대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미기총은 1997년 5월 시카고에서 미주 교계 일치와 연합, 미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화를 기치에 두고 창립했다.

2008, 2009년도에는 웹사이트를 개설, IMIC국제 기독교 선교대학 학생 모집, 파이오니어 잡지 발간, 미주 한인교회 1백년사 편찬 자료 수집 등과 함께 조국과 민족 위한 구국기도회 전개, 해외동포의날 제정 추진을 발표하고 추석, 한글날 지키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10년에는 각 지역 교회 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목회자 윤리강령 실천 운동 전개, 지역별 복음화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추진, 평신도 지도자 연합회 수련회 개최, 훌륭한 크리스챤상 시상 등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오상아 기자〉


전임회장 이영섭 목사(좌)와 신임회장 장석진 목사(우)가 악수하고 있다. 지난 12차 총회 사진. ⓒ뉴욕기독일보 DB

내적 상처의 치유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정태기 교수, 내적 치유 집회 성료

내적 치유사역자이며 영성가로 알려진 정태기 교수 초청 집회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아틀란타(베다니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한국공영방송인 KBS에서 강사로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는 정 교수는 집회 기간, 깊은 내적 상처로 어려움을 겪던 자신이 치료받고 상담학 교수로 서기까지의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성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16일, "설교가 아닌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고 운을 뗀 정 교수는 "나는 35살까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계획한 것만 20번이 넘었다"며 암울했던 과거를 돌아봤다.

섬 소년이었던 정 교수는 13살에 도시(목포)를 처음 방문했다. 두려움이 많았던 그는 어디서나 다리를 떨었다. 그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재봉틀. 다리를 하도 떨어 붙여진 별명이다. 두려움으로 인해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그는 몇 년 만에야 자신의 별명을 알았다.

정 교수의 행동은 한국신학대학교에서도 이어졌다. 4년 동안 왠지 두근거리는 마음에 단 한번도 기도를 해 본 적이 없었고 전교생 앞에서의 졸업설교에서는 '너는 이 길을 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절대 교회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공장에 취직했다. 7년이란 기간 동안 주일도 없이 12시간씩을 일했다. 돈이 없어 볼 것이라곤 대학생 때 보던 성경과 영어교재 뿐이었다. 이 두 권의 책을 7년 동안 본 그는 거의 모든 내용을 외울 지경에 이르렀고 유학시험을 거쳐 시카고 노던 신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이 곳에서의 생활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최초의 아시아인으로 정 교수에서 큰 기대를 가졌던 대학은 5년간을 지켜봤지만 항상 다리를 떠는 희망 없는 모습에 더 이상의 기회를 주기 힘들었다.

이 때 신학자요 의사인 웨인 어츠 교수를 만난 정 교수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됐다. 어츠 교수는 10시간의 깊은 상담을 통해 정 교수 내면의 깊은 상처를 발견하게 됐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싸움이 있고 난 뒤면 혼자 남겨져 2~5달씩을 보내야 됐던 정 교수는 내면에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어츠 교수는 그를 힐링커뮤니티로 보냈고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성령과 말씀, 사랑을 통한 치료를 받은 정 교수는 뛰어난 설교자로 변화됐다. 그의 별명은 '재봉틀'에서 '무대체질'로 바뀌게 됐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한 정 교수는 "서울대나 삼성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변화가 세상이 바꾼다. 나는 이 가정사역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더슨 기자〉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Refresh'

애틀랜타 교회 곳곳, 저녁기도회, 24시간 기도의 문 열어

밤 하늘 무수한 별들을 보이시며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애틀랜타 곳곳에서 진행된다.

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새벽을 여는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 40일 작정기도회를 열고 새벽은 물론 언제든 교회에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주성령교회(담임 김영복 목사), 그리고 '새벽형'보다는 '저녁형'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을 위한 열린 저녁기도회를 시작한 샘터교회(담임 진웅희 목사)가 있다.

새한장로교회에서는 '큐티로 열리는 새벽의 비밀'을 주제로 7월 한 달간 큐티로 열리는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주성령교회는 8월 28일까지 '40일 작정기도'를 시작했다. 24시간 내내 교회 문을 열어 놓고 있어 언제든지 들려 기도할 수 있다.

최근 스와니 버넷로드 선상으로 성전을 이전한 샘터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감안, 매일 저녁 9시 '열린 저녁기도회'를 열고 있다.

〈박현희 기자〉



이야기 설교, 이제는 목회현장 속으로 도입

사회전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내러티브'. 내러티브 치료, 내러티브 상담, 내러티브 세일즈.. 내러티브는 사회전반에 걸쳐 셀 수없이 응용되면서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내러티브'는 한국말로 '이야기'라는 뜻으로 '감성', '이미지'와 함께 현 세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내러티브 비평학 선구자인 David Roads 교수의 지도를 받아오며 연구해온 한태진 목사(산호세 대성장로교회)는 "'내러티브(이야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플롯(plot)으로 짜여진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감성,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 세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 전달된 이야기에 웃고 운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인가. 사실 성경이 이보다 더 깊고 기막힌 이야기가 아닌가. "

한 목사는 "삶이란 곧 이야기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는 곳에 이야기가 있다. 삶 자체가 곧 이야기이고 이야기는 삶을 형성하고 삶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태진 목사(대성장로교회)는 이야기설교방식을 소그룹성경공부를 통해 목회현장으로 도입하고있다. 그는 한국어 성경공부교재와 영어권을 위해 대성장로교회에서 직접 번역한 영어교재를 보여줬다.

■ 내러티브방식, 뛰어난 수용성과 전달력 있어 ■

그는 내러티브 방식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는 뛰어난 수용성과 전달력이 있고 기억하는데 뛰어난 장점이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하며 사람의 감성을 고양시키며 오래기억나도록 해주고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내러티브란 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한태진 목사는 "David Roads 교수(성서신학)가 1978년도에 '내러티브'란 용어를 처음 학문적 용어로 소개했다"며 "저의 주임교수인 David Roads교수가 당시는 신학의 새롭게 개척된 분야로 'Narrative Criticism'(이야기비평)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내러티브'란 말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된 경우다. 한 목사는 "지금은 사회전반적인 흐름을 대표하는 용어가 됐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강해설교도 이제는 내러티브설교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장신대 이연길 교수를 통해 소개되고 아직 내러티브설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야기란 사건, 인물이 있고, 문제해결 과정이 있다. 하나님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끌고 오셨다. 그것을 우리 이야기로 끌어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내러티브 방식 성경공부, 최초로 목회현장에 도입 ■

한태진 목사는 3년전부터 대성장로교회에 부임하면서 내러티브 방식을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도를 감행했다.

네리터브 방식을 소그룹성경공부를 통해 목회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미국교회에서도 처음 적용된 시도다. 미국교계에서도 그동안 설교영역에만 활용했지만, 목회차원에서 아직 활용되지는 못했다. 한 목사는 "미국장로교(PCUSA)교단 노회에서도 독특한 케이스라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노회에도 소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성장로교회는 영어권 아이들도 함께 공부하기위해 교재까지 직접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했다. 한국어 이야기성경공부 교재를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영어로 번역해 교재를 만들어 사용했다.

한태진 목사는 "지금까지가 세팅과정이었다면, 앞으로 성경공부 패키지를 만들어서 외부로 자료가 많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야기 성경공부방식을 한국과 미국교회에 체계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한태진 목사,'내러티브방식 목회, 주류교단도 관심보여'

내러티브 방식 소그룹 성경공부는 장년부 뿐 아니라, 영어권인 유스부에서도 함께 이뤄진다. 주일 예배전에 한시간씩 전 교인이 내러티브 방식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갖고 예배에 참석한다. 어른, 어린이 구별없이 모두 성경공부를 듣는다.

그는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배우는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 집중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아나니까 교회가 따뜻해진다. 내 소리가 작으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듯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네리티브 설교뿐 아니라 전 교인이 성경공부까지 함께해야 목회현장에서 파워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며 "내러티브 성경공부방식을 도입한지 정확히 3년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 이야기목회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 내러티브 설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이야기 설교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준비와 끊임없는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한태진 목사는 "성경 이야기외에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도 함께 찾는다"며 "설교자료로 쓰기위해 십오년넘게 준비해왔다"면서, 그동안 스크랩한 자료를 쏟아냈다.

각 주제별로 스크랩된 것 외에도 스크랩하기 위해 모아둔 박스까지 가득했다. 상담, 내적치유, 미국주류사회, 미국 경제, 2세사역, 교육, 가정, 소그룹, 전도, 멘토링 등 주제별로 스크랩자료들이 있었다.

그는 "계속 모으고 있다. 15년된 것 같다.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속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그냥 이야기가 안나온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야하니까. 이런게 그냥 나오는게 아니다. 고민해야 한다. 목회자는 계속 찾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에 미국신학교에서 7, 8년 동안 강의했지만, 신학의 갇혀있는 말씀이 아닌 목회현장, 교회현장에서 살아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니 기쁘다"

한태진 목사는 "말씀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다. 말씀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니까 설교하기가 기쁘다. 목회자가 기쁘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대로 영향 받으니까 또 행복해진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어렵게 느끼지만, 내 경우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첫째로 자료를 많이 모아야하고 둘째로 성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삶이다"라면서 성경지리연구 원서를 몇권씩 꺼내보였다. "이런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 정말 재미있다"면서 흥미진진한 말투로 그는 360도 파노라마방식으로 찍힌 이스라엘 지리책을 펼치면서 기자에게 수 권의 역사지리책을 소개했다.내러티브 설교,

■ 웹사이트 통해 소개하고 있어 ■

그는 대성교회웹사이트(www.daesung.org)뿐 아니라, 개인블로그(www.thevision333.com)를 통해 내러티브 설교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다.

〈임형진 기자〉

영혼 책임지는 교회라면, 교인기록 철저히 보관해야

SBC 교회개척 청사진 세미나, 김송식 목사 강의

미남침례교단(SBC)주최 목회자 청사진 세미나가 리빙워드한인교회(배상호 목사)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송식 목사(미남침례교 캘리포니아 교회개척전략가), 신상윤 목사(미남침례교 버지니아 교회개척전략가)가 함께 진행했다.

김송식 목사는 교회건물의 재산세 면제를 언급하며, "이전에는 교회이름으로 하면 신속히 융자받기가 어려워 목회자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으면서 교회건물주가 목사인 경우 문제가 불거졌다. 급하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교회이름이 아닌 목회자이름으로 살 경우 교회건물의 재산세 면제를 못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가장교회라도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주마다 다르지만 , 캘리포니아는 이런 면에서 교단의 보호도 못받게 되어있다. 작은 가정교회라도 법적으로 헌금을 받으려면 501(c)(3)를 엄수하고 이걸 어기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라고 말했다.

교인관리, 심방계획 철저히 세워야 김송식 목사는 "병원에서도 한번 찾아간 환자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해둔다"며 "하물며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라면, 더 꼼꼼히 교인 한 사람의 기록을 보관해둬야 한다. 설사, 타교단으로 갔다고 해도 계속 보관해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개척때 심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부모님이 언제 오셨는지, 언제 한국에 갔는지, 자녀 이름 등 심방가기전에 대상에 대해 모두 스터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심방주제, 심방계획을 세우고 예전에 심방했던 내용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35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민종기 칼럼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예수님을 놀라게 한 여인

아가서는 사랑의 성숙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바알하몬에 사는 한 시골 처녀가 포도원지기로 살다가 솔로몬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골의 순박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권위 있는 기품 있는 왕녀로 성숙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아가서 전체에 그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외쳐 노래합니다.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아 6:5).

아가서의 이야기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모형(type)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신부인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인데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는 로마군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아와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하며, 단지 명령만하여도 나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 8:10)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방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녀는 귀신들린 딸로 인하여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마 15:16). 참으로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상처를 줄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인은 간절히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마 15:27). 참으로 놀라운 겸손의 대답입니다.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말로 시험하신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 속에 있는 간절한 심령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마 15:28). 그 여인의 딸은 즉시로 나았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외침이요 질문입니다. 당시 선민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은 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놀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 종말에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모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차별화된 믿음과 행위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신자가 됩시다.

박종길 칼럼



박 종 길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새로운 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봐도, 네이버의 초기 화면을 봐도,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 변화가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 하루하루가 복잡다단하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평안할 때도 있고, 슬픈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후에는 나아지기도 하고, 지금은 잘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고,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상식파괴자〉(그레고리 번스저, 비즈니스맵)에 보면 예순여섯의 나이에 공방 유리공예 운동의 전설적인 존재가 된 데일 치후리가 나옵니다. 치후리는 대칭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리공예의 세계에서 비대칭적의 세계를 구현하고, 전통적인 유리 불기 기술을 버리고 상식과 전통을 깬 특별한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치후리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현한데에는 그에게 일어난 사고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6년에 치후리는 영국을 여행하다가 차량 충돌로 자동차 유리를 뚫고 튕겨나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그는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 시야의 주변부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으로만 보아야 되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거리감도, 대칭감각도 떨어지는 육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치후리는 사물과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고, 결국은 치후리만의 독특하고도 탁월한 세계를 창조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고난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고 1년 정도 후에 그는 서핑을 하다가 또다시 오른팔이 탈구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치후리로서는 상황과 환경에 계속 꼬이고 힘들고 좌절할만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작업, 새로운 방법을 계발하고 결국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단독 쇼를 선보일만큼 위대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치후리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한계를 뛰어 넘는 역전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작가 마르셀 푸르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고백은, 갈릴리의 풍랑에서 휘둘리는 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은 대조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줍니다. 상황과 환경을 문제로 볼 것인가? 은혜로 볼 것인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불행인가? 기회인가? 점쟁이의 인생관인 모든 사람의 운명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적 운명론'을 따를 것인가?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인 '창조적 운명론'을 따를 것인가?

내게 주어진 고난과 광야는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삶을 이해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김지성 칼럼



김 지 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성령님께 접속하십시오"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예전에 지은 집에 비해서 전기 아웃렛(콘센트)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전자기기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부엌에는 전기밥솥, 오븐, 커피메이커, 조리대가 다 전기로 작동되는 것이었습니다. TV, 컴퓨터, 선풍기, 에어컨, 심지어는 면도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구석구석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각종 전자기기 및 전기기구들의 등장으로 생활이 너무도 편리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드는 고가의 전자기기, 전기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전기의 공급이 없다면 그 모든 기기와 기구들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또한 이런 전자기기, 전기기구를 만드는 업체들도 이것들을 작동시키는 전기라는 동력을 전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40일 특별새벽부흥회를 진행하던 당시 교회를 포함한 주위에 모든 전력공급이 끊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교회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기에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예배실에 이르기까지 깜깜함 속에서 답답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가 잘 진행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동시에 전기에 대한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전력이 끊겨버린 사거리에서 자동차들이 엉겨 붙어 교통 혼잡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거리 교통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서게 되고 교통의 흐름이 단절되어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전기는 교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 수단이 됩니다. 전기 없는 일상생활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기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동력이 차단된 하루는 대혼란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만큼 동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동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움직이게 하는 강한 동력이 없이는 영적인 삶이 만들어내는 풍성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삶을 작동시키는 근원적인 동력을 '성령'으로 정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8)" 권능이란 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발한 제자(증인)의 삶을 이루게 하는 파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은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기들의 전원이 콘센트에 꽂혀야 비로소 작동하는 기기가 되듯, 우리의 영적인 전원을 성령님께 접속시켜야 영적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내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 예배, 소그룹, 섬기는 직분 그리고 비전을 가졌다 해도 이를 움직이는 동력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에 불과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이 부재된 인생은 영적혼란 속에 빠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동력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움직이는 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박성근 칼럼



박 성 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열매가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에 무식한 판매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부직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언제나 오자 투성이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고세 인는 사람드리 우리 물건 중에 10센트짜리 한 개도 사려고 하지 안는 거슬 봅니다. 그러치만 그들에게 물건 며깨를 파라씁니다. 지금은 시카우고로 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본 간부 직원은 그 판매사원을 해고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시카고에서 그 사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이고세 도착캐서는 오심만불어치를 파라씁니다.(I cum hear and sole them haff a millyon)."

간부 직원은 이 보고를 받고 십년 전 인 것 같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키딩 선생님이란 괴짜 선생님이, 오직 공부밖에 모르는 사립 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메마른 아이들의 정서를 깨우는 것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루는 화창한 오후에 교실에서 수업하지 말고 학교 정원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너희들 졸업반인데 학교 정원의 잔디를 맨발로 밟아 봤니 ?" 그러면서 선생님이 먼저 맨발로 잔디를 밟으면서 아이들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 둘, 3년 동안 처음으로 학교 잔디를 밟으며 좋아합니다. 그중에 한 아이는 나무에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동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너도 한번 해보지 그러니?" 그러자 그 남자아이가 그럴싸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즐기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리고 내 신앙과 마음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독립이란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 일본의 속박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자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자유라는 단어 하나이지만, 영어로는 freedom 과 liberty 가 있습니다. freedom 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면, liberty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속박에 있든지 풀어졌던지 내 안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도 그것에 영향 받지 않은 liberty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리고,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의 영광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해방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화내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큰 기쁨이 부족해서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하늘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에 끄덕하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항복을 싫어합니다. 항복하면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에 무척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대단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항복한 종 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라.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행군을 하다가, 피 정복민을 아무나 붙잡고 무거운 군장을 지게 하니까, 피 정복민들이 항의를 해서, 로마정부에서 거리를 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5리까지는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0리까지라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라십니다.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십니다. 속옷을 누가 더럽게 달라고 하나 ? 그것이 아니라,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에서는 옷일 뿐만 아니라, 밤에 이불역할을 하는 생명과도 직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과 연관되는 겉옷도 주라십니다.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아나는 것이 없겠다고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덜 하려고 하지 말고 더하려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딱 내게 관계된 일만 내게 주어진 것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더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자존심을 내세우고 다툽니까? 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정도 했으면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의 생리를 보면, 월급만큼만 일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월급만큼도 일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나폴레온 힐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월급을 생각하고, 누가 알아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 이상의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더 하려고 해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장로인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누가 하던지 안 하던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부터 천국시민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십시다.

남성수 칼럼



남 성 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오래전의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는 두 사람의 신부가 나옵니다. 남미의 과라니라는 원주민 촌에 선교사로 들어가 저들과 더불어 살며 섬기고 있는 본당 신부 가브리엘과 노예상인 출신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 참회의 길을 가기 위해 신부의 길로 들어선 보좌 신부 멘도자입니다.

당시 세계 여러 민족들을 식민지로 점령해 가던 포르투갈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이 세 나라의 접경 지역이었던 이 평화로운 원주민 마을을 손에 넣기 위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총과 칼을 앞세운 포루투갈 군인의 침략 앞에 대응 그 방식을 두고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자 신부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노예상인 출신으로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성격이 과격했던 보좌 신부 멘도자는 칼을 빼어 들고 저들과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성당의 책임자였던 본당 신부 가브리엘은 흥분한 보좌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정의라면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이 말을 하고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결국 신부와 과라니 부족의 원주민들은 거기서 전멸을 하고 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택이었을까요? 멘도자 신부의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가브리엘 신부의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통된 열쇠는 정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44, 로마서 13:10, 갈라디아서 5:22, 고린도전서 13장 등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해 나갈 때 늘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내가 시작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점검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며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양성필 칼럼



양 성 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더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기독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이브, 예루살렘, 마사다, 쿰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샤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내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쿰란, 텔아이브, 욥바, 갈릴리, 가버나움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벳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3. OPTION
시내산 낙타등반, 홍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요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 aju@usajutour.com, 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중고차 팀장 김기형

훼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 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CD - DVD
■ 영상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등)
■ 각종 Tea (커피, 둥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가정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 213. 725. 7217 ..... 세일즈 하실분 모집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1-15 South Exit Main Street

SK smart-naephone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톤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진료
스탠톤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5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결혼 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가나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특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 공 · 콘크리트
휀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고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K.KOH 루핑 Ll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 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 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출장수리전문 HIS COM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유,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 2010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육대학
Internatia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8월 2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윌셔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rian Theological Seminary

TEL:714-879-7952 / FAX: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 90007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많이 쓰지도 않는 집전화에 매달 높은 기본료를 지불하고 계세요?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우리집 전화비 고민해결!

마이 코리아 넘버를 잡아라!

지금 가입하셔서, 나만의 한국번호로 한국과 무제한 통화하세요!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부담없는 가격에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의 모든 혜택 그대로!

- 미국 전화번호 1개 + 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착신 무제한 무료!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기존번호 이전 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전세계 아이토크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놓칠 수 없는 기회!"
7월 16일~7월 31일
30일 환불보장

■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사용이 많으세요?

GLOBAL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 포함
(*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캐나다 장거리 + 한국포함 27개국 무제한 국제 전화 +
- '나만의 한국 전화번호' 아이코리아넘버 무료
- '간편한 전화카드 기능'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개통비($29.99) 면제

GLOBAL PLUS PLAN
글로벌+플랜
$14.99/월, TAX 포함
(*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34.99/월)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www.Korea.iTalkBB.com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월 이용료 이외에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플랜과 글로벌 플러스 플랜은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으신 총금액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계약 플랜 가입자와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TalkBB 사업자 모집

한인 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써비스, 최저 가격 보장"

한국에서의 명차 에쿠스가 미국에 드디어 옵니다.
$99을 내시고 예약을 하시는 분께 명차를 우선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7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 3YR STK:031704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 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 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 3YR STK:049539



7월 중고차 매니져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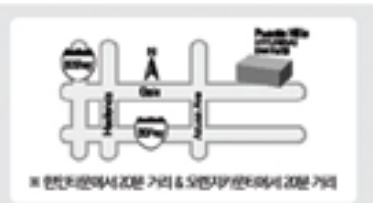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BA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568848A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살리 정 스티브 정 저스틴 길 제메인 존슨 지니 안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